

빈곤에 대한 인식 - 1990/2012/2017 비교 조사

2017년 7월 6~26일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 면접조사, 표본오차 $\pm 2.5\%$ 포인트(95% 신뢰수준)

2단계 층화 집락 무작위 추출-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응답률: 31%(총 접촉 4,828명 중 1,500명 응답 완료)

- 극빈가구 증감
- 10년 전 대비 극빈가구 생활수준
- 빈곤의 원인
- 극빈자 지원 책임
- 극빈자 지원 위해 2배 이상 세금 부담 찬반
- '빅이슈' 인지 여부

극빈가구 증감, 10년 전 대비 극빈가구 생활수준

질문) 귀하는 우리나라에 아주 가난한 사람, 즉 극빈가구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마다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면접조사	사례수 (명)	우리나라의 극빈가구는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	더 줄어든다고 있다	비슷하다
1990년 7월 20~30일	1,500	40	43	17
2012년 3월 16~30일	1,501	73	5	23
2017년 7월 6~26일	1,500	51	7	42
성별 남성	743	49	8	43
여성	757	52	7	41
연령별 19-29세	263	49	8	42
30대	264	48	6	46
40대	309	52	6	42
50대	299	50	7	43
60대 이상	365	53	9	37
지역별 서울	299	53	10	37
인천/경기	453	47	5	48
강원	46	-	-	-
대전/세종/충청	158	54	7	39
광주/전라	153	64	9	26
대구/경북	153	57	5	38
부산/울산/경남	237	39	10	52
지역 대도시	667	45	9	46
크기별 중소도시	639	54	6	41
읍/면	193	61	8	31
직업별 농/임/어업	43	-	-	-
자영업	211	53	7	40
블루칼라	436	49	8	43
화이트칼라	316	49	7	44
가정주부	337	51	7	42
학생	98	43	8	49
무직/은퇴/기타	60	71	5	25
생활 상/중상	84	66	6	28
수준별 중	824	48	7	45
중하	512	51	8	41
하	80	64	8	29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www.gallup.co.kr

질문) 10년 전과 비교할 때 극빈가구의 생활수준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못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면접조사	사례수 (명)	10년 전 대비 극빈가구 생활수준		
		더 나아졌다	더 못해졌다	비슷하다
1990년 7월 20~30일	1,500	76	13	11
2012년 3월 16~30일	1,501	22	45	33
2017년 7월 6~26일	1,500	26	28	46
성별 남성	743	27	27	46
여성	757	25	29	46
연령별 19-29세	263	22	26	51
30대	264	24	25	51
40대	309	23	31	47
50대	299	30	25	45
60대 이상	365	29	31	40
지역별 서울	299	33	29	38
인천/경기	453	25	26	49
강원	46	-	-	-
대전/세종/충청	158	25	28	47
광주/전라	153	21	34	45
대구/경북	153	33	29	38
부산/울산/경남	237	21	23	56
지역 대도시	667	26	27	47
크기별 중소도시	639	26	26	48
읍/면	193	25	35	39
직업별 농/임/어업	43	-	-	-
자영업	211	25	29	46
블루칼라	436	25	26	48
화이트칼라	316	30	25	46
가정주부	337	24	29	48
학생	98	21	27	52
무직/은퇴/기타	60	25	43	32
생활 상/중상	84	24	42	34
수준별 중	824	26	26	48
중하	512	27	27	46
하	80	20	40	40
극빈가구 더 늘어나고 있다	763	21	45	34
증감 더 줄어든다고 있다	109	61	6	32
비슷하다	627	26	10	64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www.gallup.co.kr

빈곤의 원인, 극빈자 지원 책임

질문) 귀하 주위를 볼 때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노력 부족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면접조사	사례수 (명)	빈곤의 원인		
		개인 노력 부족	환경 때문	비슷하다
1990년 7월 20~30일	1,500	38	52	10
2012년 3월 16~30일	1,501	38	42	20
2017년 7월 6~26일	1,500	37	40	22
성별 남성	743	38	39	23
여성	757	37	41	22
연령별 19-29세	263	32	43	24
30대	264	38	39	24
40대	309	35	43	22
50대	299	37	44	19
60대 이상	365	43	34	24
지역별 서울	299	43	40	18
인천/경기	453	34	37	29
강원	46	-	-	-
대전/세종/충청	158	28	45	26
광주/전라	153	38	43	19
대구/경북	153	37	43	20
부산/울산/경남	237	42	41	17
지역 대도시	667	35	37	28
크기별 중소도시	639	37	43	20
읍/면	193	48	39	13
직업별 농/임/어업	43	-	-	-
자영업	211	38	43	19
블루칼라	436	39	38	23
화이트칼라	316	31	42	28
가정주부	337	41	38	21
학생	98	34	47	19
무직/은퇴/기타	60	35	40	26
생활 상/중상	84	49	28	23
수준별 중	824	38	40	21
중하	512	34	40	25
하	80	35	50	15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www.gallup.co.kr

질문) 귀하는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제시)

- 정부 / 극빈자 자신 / 극빈자의 친척 / 자선단체 / 종교단체 / 부유층 / 기타

면접조사	사례수 (명)	극빈자 지원 책임						
		정부	극빈자 자신	부유층	극빈자의 친척	자선 단체	종교 단체	기타
1990년 7월 20~30일	1,500	57	37	0.5	1	1	1	3
2012년 3월 16~30일	1,501	53	38	8	0	1	0	0
2017년 7월 6~26일	1,500	51	40	6	1	1	0	0
성별 남성	743	51	41	6	1	1	0	0
여성	757	52	40	7	1	0	0	
연령별 19-29세	263	52	36	8	2	1		
30대	264	52	39	5	1	1	1	0
40대	309	48	42	8	1	2		
50대	299	52	41	5	1	1	0	0
60대 이상	365	51	41	6	1	1		
지역별 서울	299	53	36	8	1	1	0	
인천/경기	453	45	46	6	1	2		
강원	46	-	-	-	-	-	-	-
대전/세종/충청	158	58	38	3		1		
광주/전라	153	60	30	8			0	0
대구/경북	153	47	41	6	4	2	1	
부산/울산/경남	237	50	46	4	0			0
지역 대도시	667	55	35	7	1	1	0	0
크기별 중소도시	639	47	45	6	1	1		
읍/면	193	49	45	4	1	1		
직업별 농/임/어업	43	-	-	-	-	-	-	-
자영업	211	52	43	3	0	1		
블루칼라	436	50	42	5	1	1	1	0
화이트칼라	316	50	41	7	1	1	0	
가정주부	337	50	40	7	1	1		
학생	98	55	28	13	2	2		
무직/은퇴/기타	60	55	33	9	1	2		
생활 상/중상	84	56	39	3	2			
수준별 중	824	49	42	7	1	1	0	0
중하	512	52	39	6	1	1	0	
하	80	63	28	8	1			
빈곤의 원인 개인 노력 부족	560	39	57	3	1	0		
환경 때문	602	59	30	9	1	1	0	0
비슷하다	337	58	31	7	1	2	0	0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www.gallup.co.kr

극빈자 지원 위해 2배 이상 세금 부담 찬반, '빅이슈' 인지 여부

질문) 만약 정부가 극빈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

귀하께서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면접조사	사례수 (명)	극빈자 지원 위해 2배 이상 세금 부담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1990년 7월 20~30일	1,500	26	63	11
2012년 3월 16~30일	1,501	13	77	10
2017년 7월 6~26일	1,500	21	68	11
성별 남성	743	25	66	9
여성	757	17	70	12
연령별 19-29세	263	28	59	14
30대	264	20	69	11
40대	309	19	68	13
50대	299	22	72	6
60대 이상	365	17	73	10
지역별 서울	299	17	65	17
인천/경기	453	25	67	7
강원	46	-	-	-
대전/세종/충청	158	35	54	10
광주/전라	153	20	69	11
대구/경북	153	15	70	15
부산/울산/경남	237	14	80	6
지역 대도시	667	17	69	14
크기별 중소도시	639	25	67	7
읍/면	193	23	68	9
직업별 농/임/어업	43	-	-	-
자영업	211	23	71	6
블루칼라	436	19	69	12
화이트칼라	316	24	64	12
가정주부	337	17	73	10
학생	98	29	54	17
무직/은퇴/기타	60	31	60	8
생활 상/중상	84	24	67	10
수준별 중	824	22	68	10
중하	512	20	68	12
하	80	12	74	14
빈곤의 개인 노력 부족	560	20	73	7
원인 환경 때문	602	24	64	12
비슷하다	337	18	69	14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www.gallup.co.kr

질문) 홀리스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1991년 영국에서 창간된

길거리 잡지 '빅이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됩니다.

귀하는 오늘 이전에 '빅이슈'에 대해 듣거나 본 적 있습니까?

면접조사	사례수 (명)	빅이슈 인지 여부	
		듣거나 본 적 있다	듣거나 본 적 없다
2012년 3월 16~30일	1,501	18	82
2017년 7월 6~26일	1,500	25	75
성별 남성	743	26	74
여성	757	25	75
연령별 19-29세	263	36	64
30대	264	36	64
40대	309	29	71
50대	299	19	81
60대 이상	365	11	89
지역별 서울	299	36	64
인천/경기	453	27	73
강원	46	-	-
대전/세종/충청	158	16	84
광주/전라	153	22	78
대구/경북	153	21	79
부산/울산/경남	237	16	84
지역 대도시	667	26	74
크기별 중소도시	639	26	74
읍/면	193	18	82
직업별 농/임/어업	43	-	-
자영업	211	19	81
블루칼라	436	26	74
화이트칼라	316	32	68
가정주부	337	20	80
학생	98	43	57
무직/은퇴/기타	60	23	77
생활 상/중상	84	33	67
수준별 중	824	29	71
중하	512	20	80
하	80	9	91

*'빅이슈' 한국판은 2011년 7월 1일 창간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www.gallup.co.kr

응답자 특성표

주요 분석 단위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기준)와 지역/성/연령/직업/생활수준 분포입니다.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7개 권역/성/연령별 가중 처리 결과

응답자 특성표 2017년 7월 6~26일 면접조사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배율 (B/A)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사례수 (명)(A)	비율	사례수 (명)(B)	비율		
전체		1,500	100%	1,500	100%	1.00	±2.5%P
성별	남성	749	50%	743	50%	0.99	±3.6%P
	여성	751	50%	757	50%	1.01	±3.6%P
연령별	19~29세	299	20%	263	18%	0.88	±5.7%P
	30대	299	20%	264	18%	0.88	±5.7%P
	40대	300	20%	309	21%	1.03	±5.7%P
	50대	301	20%	299	20%	0.99	±5.6%P
	60대 이상	301	20%	365	24%	1.21	±5.6%P
지역별	서울	291	19%	299	20%	1.03	±5.7%P
	인천/경기	389	26%	453	30%	1.17	±5.0%P
	강원	50	3%	46	3%	0.92	±13.9%P
	대전/세종/충청	181	12%	158	11%	0.88	±7.3%P
	광주/전라	170	11%	153	10%	0.90	±7.5%P
	대구/경북	169	11%	153	10%	0.91	±7.5%P
	부산/울산/경남	250	17%	237	16%	0.95	±6.2%P
지역 크기별	대도시	670	45%	667	44%	X	±3.8%P
	중소도시	635	42%	639	43%		±3.9%P
	읍/면	195	13%	193	13%		±7.0%P
직업별	농/임/어업	42	3%	43	3%		±15.1%P
	자영업	205	14%	211	14%		±6.8%P
	블루칼라	445	30%	436	29%		±4.6%P
	화이트칼라	332	22%	316	21%		±5.4%P
	가정주부	308	21%	337	22%		±5.6%P
	학생	108	7%	98	7%		±9.4%P
	무직/은퇴/기타	60	4%	60	4%		±12.7%P
생활 수준별	상/중상	85	6%	84	6%		±10.6%P
	중	833	56%	824	55%		±3.4%P
	중하	507	34%	512	34%		±4.4%P
	하	75	5%	80	5%		±11.3%P

*표본오차는 조사완료 사례수 기준. 한국갤럽 www.gallup.co.kr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가중 처리 결과